

여성, 안전을 질문하다

나를 지키는 글쓰기 - 자전적 에세이

꽃벌 김 화 속

안전한 모임 안전한 글쓰기 약속문

1. 우리의 다양한 위치성을 고려하여 서로의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등 상대의 정체성을 함부로 규정하거나 질문하지 않는다.
3.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나이 등 위계 없이 서로 이름 부르며 평어로 말한다.
4. 낯선 의견에 대해서, 평가하고 재단하기 보단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질문한다.
5. 소수가 발언을 독점하지 않고, 다름과 부족함에서도 배우는 집단지성을 추구한다.
6. 모든 종류의 혐오 및 차별과 배제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7. 글쓰기와 합평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평등과 안전을 경험하는 공부라 여긴다.
8. 모임의 안전을 위해 나-개인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솔직하게 말로 나눈다.
9. 글쓰기와 합평으로 나눈 이야기로 타인을 납작하게 요약하려 하지 않는다.
10. 사진 촬영과 업로드 시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먼저 구한다.

여성 생명 안전. 나를 지키는 글쓰기

- [1주] 여성 생명 안전 - 왜 글쓰기인가? 막 써보는 재미.
- [2주] 내 삶의 이야기 쓰기 - 에세이의 구조, 이야기의 힘.
- [3주] 여성의 글쓰기 - 나는 누구인가, 내 목소리를 찾아서.
- [4주] 함께 쓰기라는 예술 - 합평과 수정이 키운 글근육.
- [5주] 퇴고의 힘 - 달라지는 수정고, 맛깔나는 퇴고!
- [6-10주] (1주 휴가) 추가 합평. 퇴고. 편집회의. 출간 및 북토크.



지켜 준다며? 안 지켜 줄 거야?

나를 지키는 에세이?

에세이(Essay)의 어원은 프랑스어 'Essayer(시도하다, 시험하다)'.

내 일상에서 출발- 세상의 통념을 의심- 나만의 관점- 해석 질문 통찰 시도

글감(소재)은 안전(불안전) 관련 일상의 모든 것.

결핍, 상처, 폭력, 실패, 질병, 죽음, 사고, 성차별, 장애, 배제, 재난...

아하! 내 관점 내 통찰, 내 맘대로 시도하는 글쓰기다.

<간 해부도>

우후구역 우전구역 좌내구역 좌외구역

Right
posterior
section

Right
anterior
section

Left
medial
section

Left
lateral
section

우간정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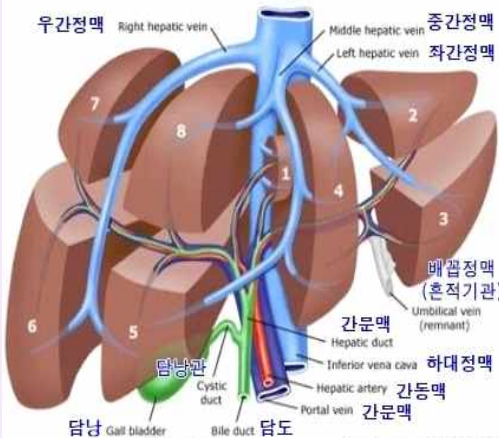
Right hepatic vein

Middle hepatic vein

중간정맥

Left hepatic vein

좌간정맥



배꼽정맥
(흔적기관)

Umbilical vein
(remnant)

간문맥

Hepatic duct

Inferior vena cava

하대정맥

Hepatic artery

간동맥

Portal vein

간문맥

담낭관

Cystic duct

Bile duct

담낭 Gall blad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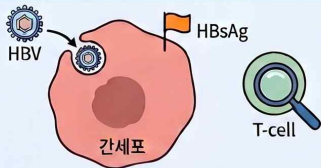
담도

출처 <http://tgh.amegroups.com/article/view/3589/4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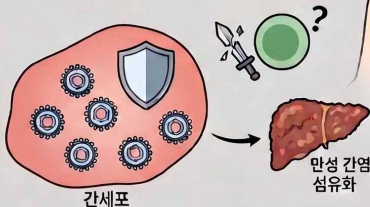
B형간염과 면역 반응의 네 가지 양상

1. 면역 인식



간세포 감염 및 신호 표출

3. 만성 간염 (회피)



바이러스가 공격을 회피하여 공존

2. 정상 제거 (성공!)



감염 세포 사멸

면역 세포가 감염 세포 파괴

4. 자가면역성 손상 (오인사격!)



면역계 과열로 정상 세포를 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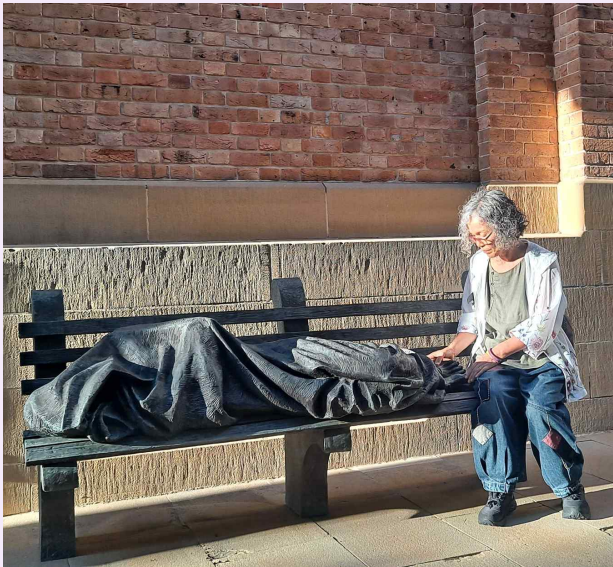
B형간염 제1형당뇨병 류마티스관절염 쇼그렌증후군 하시모토갑상선염
자율신경병증 루푸스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건선 강직성척수염 백반증

아하! 면역체계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구나!

아하! 침묵 비굴 회피 자기비하 자기혐오였군!

아하! 내가 달라져야 면역체계가 달라지겠구나!

아하! 분노 자기돌봄 자기사랑 말 글 목소리 행동!



내 몸은 내가 접수한다

김화숙 지음



자연치유로 B형간염간암을 극복하고
삶을 바꿔버린 여자 이야기



숙덕숙덕 사모의 그림자 탈출기

김화숙 지음



“사람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게 예수 복음
아닌가요?”



“몸은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한다.”— 마사 그레이엄

“그 누구도 다시
여러분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



"주류 질서의 척도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면서도
학벌에 대해선 예외가 없어요.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꾼다던 이들도 결국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라고 말해요.
저 지점을 내가 뚫어야겠다
마음먹었죠. 혼자만의 독립운동이지만
사람이 자기 영역에서 깨어 있으려면
하나의 결핍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은유

조승리
에세이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책을 읽고 슬펐고
아리고 기운이 났다는 사실
그녀의 흰철한 글 앞에서 내가 바
이병률 (시인·여)

★ 2024 ★
올해의 신인상

내 나이 15살, 서서히 앞을 보지 못할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이 소식에 충격을 받은 엄마는 용하다는 무당이며

스님을 찾아다녔고 신비의 영약이라는 물도 찾아다녔지만

결국 시력을 잃고 말았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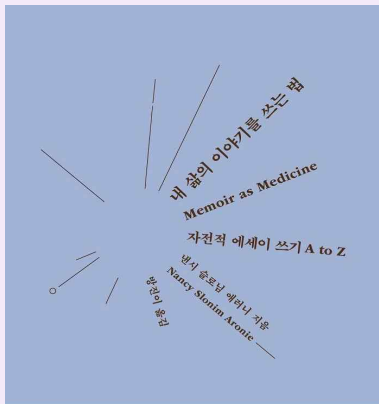
매일 슬픔 속에서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나이를 세는 숫자가 늘어날 적마다 나는 무언가 하나씩을

잃어버려야 했다. 시력을 잃었고, 친구를 잃었고,

연인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다.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자기의 목소리와
리듬과 언어로
'세상의 중심'인
당신의 이야기를 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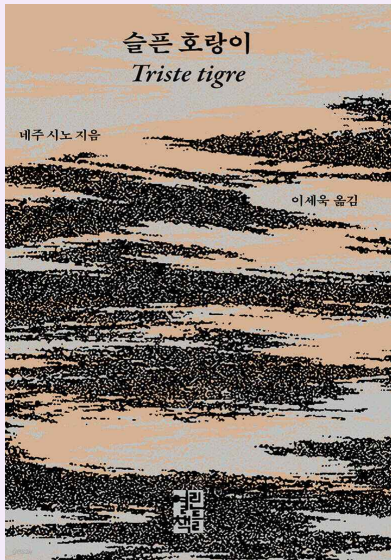
동네
개

45년간 글쓰기 워크숍을 운영해온
저자의 자전적 에세이 쓰기 노하우

하버드대학교 3년 연속
최우수 강의상 수상

나는 자전적 에세이를 쓰면서 내 분노, 공포, 깨달음을
종이에 옮기고, 내 결혼생활을 정서적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보고, 내 강점을 보되 약점도 인정하고, 내 자아에서
여전히 성장시켜야 할 부분을 찾았다.

내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인질이 되었는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이야말로
내게 필요한 최고의 치료제였고 그런 치료제를 처방한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 낸시 에러니



내가 이 책을 쓰고 싶지 않은 이유

- 1) 나는 강간에 관한 글쓰기를 전문으로 삼고 싶지 않다.
- 2) 다른 무엇보다, 나는, 이 책처럼, 내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경계한다**. 만약 우리가 주제에 압도된다면 어떻게 새로운 것, 미학적으로 가치 높은 것을 쓸 수 있겠는가?
- 7) 나는 글쓰기가 치료법이 된다는 생각을 믿지 않는다. 설령 그런 글쓰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책을 통해 내가 치유된다고 생각하면 혐오감이 밀려온다.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은 진실을 찾기 위함이다. 규명하기 어렵고 분명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진실,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실.... 다른 진실의 어두운 부분이고 **저주받은 쌍생의 진실**이다. (140쪽)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기에 내가 생각을 바꾸어 이 글을 쓰고 있을까?

아마도 내가 **어떤 경계를 넘어 다른 편으로 건너왔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 나는 연약한 소녀였지만, 이제는 그런 소녀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보호를 받을 차례다**. (272-278쪽)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여러분을 내 편으로 가정할 수도 있다.

여기는 안전한 공간, 적이 없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에서 나는 누구를 설득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126쪽)

4285km,
이것은 누구나의 삶이자 희망의 기록이다

wild

와일드

세인트스프래이트 저음 - 우간다 울림



나뭇잎의 철학



매일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되새긴 용기의 말들

**나는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문장을 따라 걸었다**

BRAVE ENOUGH

Cheryl Strayed

“내가 문장 수집가가 된 이유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는 ‘말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작가의 삶을 버티게 해준 인생 문장 모음집

+++ 밀리언셀러 <와이프> 이후 최고의 도서! +++

북라오

나는 줄곧 ‘문장 수집가’로 살아왔다.

위로가 필요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정신을 번쩍 들게 할
한 방이 필요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문장’으로 향했다.



© Cheryl Strayed Publicity Shots by Brian McDonnell

이미 산꼭대기에 올라서서는
산꼭대기를 바라볼 수 없다.
우리는 가장 아래에서 시작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은
상처 없이는 오르지 못한다.

—세릴 스트레이드

네 이야기를 굳이?

왜냐하면 지금 저곳에
당신의 이야기와 똑같은 모양의 상처를 지닌
누군가가 있으니까.
— 손 토마스 도허티

타자화에 대항하는 글쓰기

"그들은 우리와 달라" "나는 그들과 달라" 모든 차별은 타자화에서 시작.

1. **멸시(낙인과 배제)** — 여성, 이주민, 소수자, 장애인, 유색인, 재난의 피해자. 피와 살과 감정과 인격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열등한 약자, 희생자, 타락한, 불쌍한, 피해자로 봄. 차별 정당화 대상화. **평등과 연대의 적.**

2. **영웅시(우상화)** — 대상을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로 올려서 바라봄. 두려움, 슬픔, 결점, 절망, 인간적인 고뇌와 투쟁은 안 보고, 순결 숭고 특별한 영웅 서사로만 바라봄. 물인격 숭배 대상화. **평등과 연대의 적.**

"자전적 에세이, 연결과 연대의 길"

숙덕숙덕 사모의
그림자 탈출기

김화숙 지음

"사람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게 예수 복음
아닌가요?"



사람의소리

나는 왜 쓰고 싶지?

내게 말할 기회를 주고 나와 화해하고 싶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고 싶어서.

내가 살고 싶은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서.

"그렇다면 내가 쓰겠다"

“나는 기필코 값싼 인종주의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며, 피부색에 대한
쉽고 간단하며 일상적인 집착을,
노예제도 그 자체를 상기시키는
이 집착을 절멸시킬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아직 그런 책이 없다면,
당신이 직접 써야 합니다."

-토니 모리슨

자전적 에세이의 맛

1. 특별한 사람 특이한 이야기라야 글이 되는가?
2. 주제 장악력, 하고 싶은 말, 통찰과 질문이 있는가?
3. 교훈을 주려 하거나 도덕적 반성과 결론을 유도하려는가?
4.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것인가?
5. 겉으로 보이는 나와 내면의 내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가?
6. 글에 냄새, 색깔, 분위기, 느낌, 얼굴이 있는가?

보여줄까? 설명할까?

1.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에세이

육하원칙 시간과 사건 순서대로 전개
장면 인물 상황 등 생생한 묘사와 서술

3. 설득 주장 비평 에세이

에피소드나 사건, 책 인용으로 시작해
사회 구조·제도 분석과 비평 주장까지 감

2. 반성 성찰적 에세이

한 에피소드로 시작해 발견과 성찰로 감
과거의 경험을 지금의 시선으로 해석 통찰

4. 마음 가는대로 에세이

시적인 문장, 편지, 단상, 수필
마음 가는대로 마음의 혼란 그대로 표현

에세이 기본 구조

도입(기)
(15~20%)

신선한 에피소드 매력적인 hook, 인용, 질문 등으로 시작
첫 문장 중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핵심 문제의식 보여야

전개(승,전)
(60~70%)

도입부에 제시한 문제를 전개.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장 심화
핵심 이야기 근거, 예시, 통계, 체험, 반론, 해결, 질문 등으로

마무리(결)
(10~15%)

지금까지 한 이야기 핵심 주제 강조하되 지루하지 않게 마무리
질문 반문 대안 제시 또는 끝나지 않은 듯이 끝내는 기법도 있음!

한 꼭지엔 하나의 이야기

1.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제목, 소제목, 도입부, 첫문장 중요.
2. 어떤 형식과 구조로, 어느 정도 분량으로 쓸지 생각한다.
3. 한 꼭지엔 한 가지 주제, 한 단락엔 한 가지 이야기가 담기게 한다.
4. 단락은 너무 길지 않게, 단락엔 중요한 말 먼저 하도록 한다.
5. 설명하는 게 좋을지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 좋을지 선택한다.
6.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고 적확하고 쉬운 말을 선택한다.
7. 일단 끝까지 완성해 보고 전체 분량 고려, 구성, 배치 등 수정한다.
8. 다 쓴 글을 소리 내 읽어보면 어색한 지점이 보인다.

좋은 글을 위한 점검

1. 이 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2. 글 쓴 사람이 보이는가?
3. 질문이 들어있는가?
4. 이 글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5. 애매하게 입장을 흐리고 있지는 않은가?

에세이 읽고 수다 떨기

1. 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일기

2. 사모님은 궁금해하지도 묻지도 마시라

3. 탕고를 추는 시간

4. 흔적을 안고 있는 여자

5. 장면의 이면

자전적 에세이 쓰기

1. 지금 떠오르는 이야기로 막 쓰기

2. 첫 시간에 쓴 이야기 이어서 채워 쓰기

3. 보여줄까? 설명할까? 일단 맘 가는대로 써보자!

4. 어떤 구조, 매력적인 제목, 도입부, 첫문장, 첫단락...

5. 3주차 수업 전 초고 1편 밴드에 업로드하기 (1.5~2쪽)

초고(初稿)

모든 초고는 기꺼이 쓰레기다
완벽이라는 해묵은 족쇄를 풀고
텅 빈 백지의 영토 위에
거친 첫 줄을, 그냥 질러라

쓰이지 않은 문장은 고칠 수 없나니
정돈된 침묵 속에서 주저하지 마라
첫 문장의 부끄러움을 견딘 자만이
비로소 다음 페이지의 주인이 된다

일단 쏟아내라, 거친 소음처럼
막 쓴 낙서가 다음 줄을 불러내나니
멈추지 않고 써 나가는 야성만이
진흙 묻은 손끝으로 보석을 만진다

깎고 다듬기는 그 다음의 일
위대한 조각은 끝내 완성되리니
기억하라, 눈부신 명작은 언제나
그 어설픈 첫 줄이 버텨낸 시간이다

자, 위풍당당 쓰는 거야!!



꿀벌 김화숙

휴대폰 : 010-3918-9217

이메일 : dream40k@hanmail.net

브런치 : <http://brunch.co.kr/@dream40k>

블로그 : <http://blog.naver.com/kkulbol>

